

뭔가 고향으로 가져갈 것을 찾던 한국의 노신사

리차드 웨스트레이크

(취산 선생의 아바타 마스터, 현재 미국방성에 근무하고 있음.)

내가 처음으로 박선생님을 만난 것은 92년 2월, 그가 아바타 코스를 문의하러 나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 날 저녁 그가 나를 방문해 코스문의를 하겠다는 전화 요청에 나는 약간 놀랐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와 나는 이 단정한 한국의 노신사가 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도 그의 손에는 훌륭한 녹차가 선물로 들려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도가 밝은 학생이라면 이런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그때 녹차를 끓일 포트를 찾느라 애썼던 기억이 난다.

얘기를 해 나가는 중에 그는 자신이 아바타에 흥미가 있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고향으로 가져갈 것'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바타 저널에서 읽은 이야기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느낀 전부인지 알고 싶어했다.

그는 혼자서 코스를 하는 것을 걱정스러워 했다.

그의 삶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생각에 매우 우울해했다. 그러나 만일 아바타가 저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면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다.

92년 3월 그는 코스를 시작했다. 시작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배운 것을 잊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야 아바타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숲속의 은신처에서 그는 추운 겨울 바람을 견뎌내며 화해 언덕 오르기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나의 발목을 잡았고, 나 또한 그가 자신의 영적 탈출구(해결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 그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코스를 마쳤다. 그리고 스타즈에지사(아바타코스의 창시자)에 가서 교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고 싶어했다.

그 몇달간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동안 그는 <창조학>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그해 초여름 그는 마침내 한국의 금비문화사에 그것을 보내 출판을 하게 했다. 그리고 7월말 마스터 코스에 참가했다. 그러나 코스중 몸이 아파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서 10월 그의 친구들을 그가 안내할 수 없게 되자 나에게 한국에 와서 안내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가 비록 아바타 마스터이긴 했지만, 그때 나는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나의 여행 휴가를 거절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커다란 가치를 지닌 모험이 되지 않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10월 중순 서울로 날아가 박선생님과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강릉의 용평 리조트에서 코스를 열었다. 코스의 참가자들이 나의 안내를 받으며 오랫동안 잃었던 창조력과 직관력을 일깨우고 있는지 어떤지를 아는 것은 내게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오로지 그들의 진전도를 관찰하는 나의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 우리는 힘들게 해 나갔으며, 그들에게서 그 능력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나의 과정을 끝마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2부 과정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나는 그

를 보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났다. 그러나 다른 여섯 사람은 대단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코스의 마지막 과정은 오대산 자락의 월정사에서 가졌다.

박선생님은 지치지 않고 아봐타 교재의 번역을 마쳤다. 아봐타 교재뿐만이 아니라 마스터, 프로페셔널, 위저드 코스 교재까지 마쳤다. 우리는 그가 해대는 질문에 대해 토의를 했고, 그는 영어 이해력을 넓혀 갔으며 아봐타 교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확장되었다. 그 다음해 1993년 8월 그와 그의 친구들인 한국의 마스터들은 나를 한국에 초청하여 그들과 아봐타 코스를 진행하는 영광을 또 한번 나에게 주었다. 그들중 한 사람이 나에게 박선생님이야 말로 아봐타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번역자임에 틀림없다고 말해 주었다.

한국에서 아봐타 코스가 인기를 더해감에 따라 박선생님은 더욱더 바빠져 갔다. 우리는 그로부터 소식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가 '지금여기'를 시작하자 그의 소식을 듣기는 훨씬 더 힘들었다. 그는 잡지를 출판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고 나는 내 직업에 더 열중했다.

나는 나의 친구 박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의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며, 그의 온화한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한국에서 아봐타 코스의 아버지이다. 나는 그저 처음 코스를 해준 산파였을 뿐이다.

1999년 10월 22일

Richard Westlake

西湖樂

Rockville, MD USA

Richard Westlake

西湖樂

Rockville, MD USA